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서울포스트 4면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 신상발언

## 와이스퀘어 건물(구 한마음예식장) 소규모 부스 설치해야



지난 8일 제191회 제2차 본회의서 박문수 의원이 강북구민과 강북구청을 우롱하는 대규모점포개설자(구 한마음예식장)에게 강력한 대응요구하는 신상발언을 실시했다.

박문수 의원은 “미아사거리에 강북구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와이스퀘어 건물이 준공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밝히고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소규모점포 유치, 잔여공간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부스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의 기회 제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적 기틀 마련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한 초석 마련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역협력계획서를 보면 강북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강북구민과 함께 하는 매우 올바른 기업가의 정신을 가진 훌륭한 기업이며 존경받아야 할 기업이라고 판단되지만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 못하다”며 신상발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본 건물이 준공되었고 본 의원이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자 집행부를 통해서 건축주로부터 받은 답변에는 ‘몇 달 간 매장을 운영한 후 고객 동선 및 매장 내 잔여공간 여부 등이 확인되면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 주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건물주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건축을 할 당시에 소음, 분진 등으로 피해를 본 일명 송중동 주민에게 확인해 봐야 했다”며 만일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았다면 지역경제와 직무유기 또는 근무태만이라고 했다. 또 시행자가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한 서류상만 다수의 소규모점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운영했다고 한 것이라면 거짓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본 의원의 견해와 같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에 따라 고소 내지 고발을 해야 된다”며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다면 강북구청을 기만, 능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